



보도자료

- 건설경제팀 팀 장 손 태 락
사무관 하 창 훈
- ☎ 02-2110-8735, 8740
- changhoon@moct.go.kr
- 12월 21일 배포(총 10 대)

- **12.22(금) 조간**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변화하는 건설현장, '甲乙관계'는 옛말

- 건교부, 상생협력 시범사업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
- 건설현장 상생협력 운영매뉴얼 및 우수사례집 발간

□ 건설교통부는 12.21일 이용섭 건설교통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「상생협력 시범사업 우수사례 발표회」를 개최하고, 우수 발주자 및 건설업체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. (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150여명 참석)

○ 이번 발표회는 건교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과 공사·공단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공사현장별 상생협의체의 운영 성과를 확산·공유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,

- 발주자 및 원·하도급자가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모든 공사참여자의 원활한 협력을 통해 시공효율을 제고한 다수의 우수사례가 소개되었다.

※ [참고 1] 우수사례 발표회 행사개요

□ 건교부는 지난 3월부터 실시되었던 17개 건설공사현장*의 상생협약체 시범사업 운영성과를 분석한 결과,

* [참고 2] 시범사업 실시현장 목록

① 우선, 발주자가 상생협약체를 통하여 시공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합리적 의견조정과 대안제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협력적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며,

○ 발주자와 원도급자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, 원도급대금 지급 등의 정보를 하도급자에게도 공개함에 따라 공사현장의 의사소통체계가 일방적 하달구조에서 수평적 합의체계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.

<시범사업 현장사례>

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<행목-중방> 도로공사 현장에서 원도급자는 구조물 뒷채움 재료를 현장에서 생산·사용토록 계획하였으나, 발주자와 원·하도급자가 상생협약회 논의를 통해 골재의 적기공급을 위하여 일부골재의 공급방법을 구입으로 변경기로 하고, 발주자가 신속히 설계변경을 승인

② 또한, 발주자가 중소하도급자의 재정적 애로를 직접 청취함에 따라 현장여건에 맞추어 선급금·기성금 등 공사대금을 적기에 지원하는 사례가 증가하였으며,

<시범사업 현장사례>

도로공사의 <안성-음성> 7공구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는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기성집행율대로 지급하던 내부기준을 변경하여 실비정산 지급으로 개선, 공사초기 투입이 많은 원·하도급자의 안전관리비 부담 경감

- 원도급자도 하도급자의 자재구입비용을 보조하거나, 현금 지급비율을 상향조정하고, 기성검사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을 확대하였다.
- 아울러, 시범사업 현장에서는 자재업자에 대한 납품대금 지연이나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도 감소하여 상생협력의 효과가 시공현장 참여자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.

<시범사업 현장사례>

-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<보성-이양> 도로공사현장에서는 철강재 파동으로 강관파일 가격이 폭등하여 하도급자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자 원도급자가 우선 자재를 조달하여 하도급자의 공사추진 애로를 해소
- 주택공사에서는 자체 상생협력매뉴얼을 제정하여 기성금 지급시 현장 근로자 면담 등을 실시하여 임금체불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토록 규정

- ③ 발주자 및 원도급자가 보유한 선진 시공기법이 상생협약체의 합동기술검토 등을 통하여 하도급자에게 이전되기도 하였는데,
- 원도급자가 단독수행하던 첨단공법을 활용한 시공과정에 하도급자를 공동참여시키거나,
 - 발주자·원도급자가 교육자료 배포, 현장강의 등 직접적인 교육을 통하여 하도급자의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사례가 증가하였다.

<시범사업 현장사례>

-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<행목-중방> 도로공사현장에서 원도급자가 교량 기초공사중 현장 주변에 정밀기기를 운용하는 공장이 인접한 사실을 확인하고, 저소음·저진동 방식으로 공법을 변경하면서 하도급자를 설계변경에서 시공까지의 전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기술교육
- 도로공사의 <익산-장수> 3공구 고속도로공사현장에서는 시공중 절토 사면이 붕괴하자 도로공사 산하의 도로기술연구원에서 원·하도급자를 대상으로 붕괴부 보강공법에 관한 현지자문을 실시

- ④ 한편, **상생협력 협약체결, 현장 체육대회 개최** 등으로 원·하도급자간 교류가 확대되고, 상생협약체 운영을 통하여 **공사참여자간 상호신뢰가 제고됨**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이 감소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다.

<시범사업 현장사례>

- 도로공사에서는 고속도로 건설현장 원·하도급 78개사 대표자들간 「상생협력 Win-Win 전진대회」를 개최하고 상생협력 현장을 채택
-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수평적 협력관계 형성을 위하여 상생협약체 운영시 하도급업체 위원에게도 회의주제 기회를 부여

- 공사참여자간의 상호불신으로 인해 의사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공사진행이 지연되던 그동안의 잘못된 분위기가 현저히 개선되었으며,
- 원·하도급자 외에 발주자 및 상생협약체에 참가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외부위원이 중재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분쟁이 감소하고 분쟁 발생시에도 원만한 해결이 가능하게 되었다.

<시범사업 현장사례>

- 부산지방국토관리청 <청암-삼장> 도로공사현장에서는 원도급자의 부도로 공사가 중지되고, 연대시공사, 하도급자, 감리단 상호간 불신이 팽배하여 향후 현장운영방법 등에 대한 협의가 지연되고 있었으나 상생협약체를 통한 신뢰형성으로 조기에 정상화
- 상기 현장에서는 문화재 발굴조사가 관계기관(지자체 등)과의 협의 난항으로 지연되어 원·하도급자간 공기지연 책임분쟁의 소지가 있었으나, 상생협약체 외부위원으로 위촉된 군청 공무원의 적극적 중재로 행정협약이 조기에 완료되고 공기를 준수

□ 건설교통부는 이와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건설업체들이 건설현장의 **상생협력**을 단순히 하도급자에 대한 지원으로만 이해하고 있다고 보고,

- 공기단축, 분쟁감소 등으로 공사효율이 증대된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**상생협력사례집**을 발간·배포하고, 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.

□ 아울러, **상생협력 관계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상황**에서 일부현장의 상생협력시책 추진이 형식화되는 등 **현장에 따라 성과가 다르게 나타났던 사실**을 고려하여,

- 발주자 및 원·하도급자가 일반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**상생협력 표준모델 및 운영매뉴얼**을 작성·보급하기로 하였으며,
- 매뉴얼에서는 건설공사 단계별로 **계약·착공단계, 시공단계, 준공단계**에 따라 발주자, 원·하도급자 등 각 공사참여 주체의 역할을 규정할 예정이다.

<표준모델/운영매뉴얼 주요내용>

- (계약·착공단계) 상생협력 협약서 체결, 상생협의회 구성, 상생협력 추진계획 수립 등
- (시공단계) 상생협의회 운영, 시공과정의 재무·기술·교육지원 방안 등
- (준공단계) 기성금 지급요령 등 준공단계 상생협력 사항, 상생협력 추진 성과 관리, 우수참여자 포상 등

※ [참고 3] 건설산업 표준모델/운영매뉴얼(요약)

- 이에앞서 12.19일 건설교통부는 건교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, 발주자(공사·공단) 및 원·하도급업체 대표,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‘건설산업상생협력위원회’를 개최하여,
 - 금년중에 추진한 건설산업 상생협력과제의 추진성과 및 2007년 추진계획을 논의하였으며,
 - 본 회의에서는 상생협업체 구성·운영 등 상생협력과제의 추진이 건설현장 상생협력과 시공효율성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향후에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.

- 건설교통부는 앞으로 공사규모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상생협업체 구성대상 공사를 확대지정하고 운영표준을 제시할 계획이며,
 - 건설현장에서 상생협력관계의 정착을 위하여 발주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하고, 하도급공사정보망 구축 등 관련 업무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[참고 1]

우수사례발표회 행사개요

□ 개 요

- 일 시 : 2006.12.21(木) 15:00
- 장 소 :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
- 목 적 : 시범사업 우수업체 포상 및 우수사례 발표
- 주 최 : 건설교통부
- 참 석 : 약 150명
 - 건설교통부장관
 -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, 건설단체장
 - 시범사업에 참여한 발주기관 및 건설업체 임·직원 등

□ 유공자 포상

- 발주기관 : 한국토지공사 등 8개 기관
- 원도급업체 : 삼성물산(주) 등 11개 업체
- 하도급업체 : 한라토건 등 12개 업체
- 현대건설 송호근 대리 등 추진유공자 11명

□ 우수사례 발표 : 3개기관(업체)

- 발주기관 : 한국토지공사
- 원도급업체 : 임광토건(주)
- 하도급업체 : 구영개발(주)

시범사업 실시현장 목록

발주기관명	공사명	시공사 (하도급사)
서울지방국토관리청	성남-장호원 2공구 도로건설공사	현대건설(주) 휘선건설(주) 외 1
원주지방국토관리청	북면-용대 1공구 도로건설공사	계룡건설산업(주) 동인엔지니어링(주)
대전지방국토관리청	행목-중방 도로건설공사	대림산업(주) 삼대양개발(주)외 2
익산지방국토관리청	보성-이양 도로건설공사	임광토건(주) 강산건설(주) 외 4
부산지방국토관리청	청암-삼장 도로건설공사	병일종합건설(주) (자)일진건설 외 1
한국철도시설공단	경부고속철도(12-4공구) 노반신설기타공사	성지건설(주) 진성토건(주) 외 2
	경부고속철도(10-5공구) 노반신설기타공사	두산산업개발(주) VSL코리아(주) 외 1
인천국제공항공사	인천국제공항 2단계건설 제3활주로 북측토목시설공사(2A-1공구)	(주)한진중공업 성광건설(주) 외 1
	인천국제공항 2단계건설 제3활주로 부지조성공사(3공구)	한신공영(주) 삼호개발(주) 외 2
대한주택공사	용인보라 5공구 아파트 건설공사	명지건설(주) 구영개발(주) 외 1
	용인동백 턴키 아파트 건설공사	금호산업(주) 동북산업개발(주)외4
한국수자원공사	한강하류권 급수체계구축 1차사업2공구 도송수시설공사	현대건설(주) 신승토건(주) 외 4
	전남서부권 광역상수도사업 (평립댐) 건설공사	(주)케이씨씨건설 광혁건설(주) 외 4
한국도로공사	고속국도 제40호선 안성-음성간 고속도로건설공사(제7공구)	대우건설(주) 성보개발(주) 외 1
	고속국도 제20호선 익산-장수간 고속도로건설공사(제3공구)	삼환기업(주) 구산토건(주) 외 1
한국토지공사	성남판교 택지조성공사(1공구)	삼성물산(주) 한라토건(주) 외 4
	부산정관 산업단지조성공사	고려개발(주) 초석건설산업(주)외 3

상생협력 표준모델 및 운영매뉴얼(요약)

□ 목적 및 활용

- 건설교통부 소속·산하기관 발주공사중 현장별 상생협의회 구성 대상공사의 상생협력시책 추진시 참고
- 건설관련법령, 공사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은 의무적으로 시행하고,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생협의회 구성원 동의를 통하여 시행

□ 상생협의회 구성 및 운영 방법

- 건설현장의 상생협력시책 추진의 주체로서 현장별 상생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, 그 운영방법을 규정
- 공사계약 체결 직후 발주처 주관 하에 원·하도급업체 대표로 구성하되, 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 외부인사의 참여도 가능
- 상생협의회는 위원장이 주재하고 전 위원이 참석하는 월간회의 및 발주처 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이 참석하는 주간회의를 개최하고 운영일지를 작성

※ 다만, 주간회의는 주간 공정회의, 보건협의회 등과 병합개최 가능

<상생협의회 주요임무>

- 상생협력 활동의 원활한 추진
- 원·하도급업체 상호간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관계 유지
- 협의회 구성원 상호간 고충 및 애로사항 해소, 교육협력, 기술 교류 및 경영지원 등 자발적 협력사항 발굴
- 안전한 건설공사 수행 방법 협의, 품질제고 노력
- 건설현장의 상생협력 분위기 확산 노력
- 불필요한 분쟁 최소화, 원활한 공사를 위한 공종간 작업순서 협의
-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근로자의 작업환경 개선

□ 공사단계별 상생협력 방안

- 공사단계별로 발주처,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등 주체별 역할을 규정하고 우수 협력사례를 소개
- 계약·착공단계에서는 상생협력 협약서 체결, 상생협의체 구성, 상생협력 추진계획 수립
- 시공단계에서는 각 주체가 상생협의체 위원으로서 운영에 참가하고, 기성금 지급, 자재구매 등과 관련한 재무지원, 특화공법에 대한 기술이전, 기능인력 교육지원 등 시행
- 준공단계에서는 공사비 정산, 하자책임기간 설정 등과 관련한 상생협력과제를 추진하고 당해 현장 상생협력 추진성과를 평가

□ 상생협력 추진성과 관리

- 현장별로 실시된 상생협력시책의 추진성과를 발주기관별로 관리하고 평가·환류
- 발주자는 연차별공사는 매년 8월, 단년도공사의 경우 공정율이 40% 수준에 이르렀을 때 설문조사, 현지조사 등 방법으로 상생협력 추진실태를 중간점검
- 발주자는 연차별공사의 경우 매년 11월, 단년도 공사의 경우 준공 직후에 자체기준을 통해 현장별로 연간 상생협력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우수 현장에 대하여 표창 상신 등 인센티브 부여